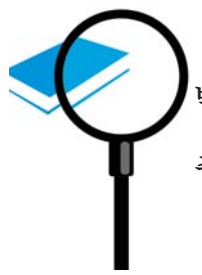


후추는 대항해 시대 열고 소금은 인도 독립 앞당겼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가루전쟁

도현신 지음

“흑인 노예들을 부려 얻은 설탕을 팔아 가장 많이 돈을 번 나라는 아이티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였다. 아이티의 설탕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아무리 줄어들었을 때도 최소한 프랑스 정부 1년 예산의 25퍼센트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17세기와 18세기 무렵, 아이티는 설탕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이 설탕 판매로 거둔 수익은 아이티에 살고 있던 3만 명의 프랑스인 지주와 프랑스 정부에만 돌아갔으며, 나머지 48만 명의 흑인 노예들은 가난에 찌든 채 살아야 했다.” (본문 중에서)



설탕, 소금, 후추, 밀, 커피, 초콜릿...

열거한 기호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가루로 돼 있다는 것이다. 식탁이나 일상에서 즐기기도 하지만, 더러는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음식의 역사라 해도 무방하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기본적인 생존활동과 직결된다. 오랫동안 인류는 주저지 인근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재료를 원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음식과 연관된 활동은 자연스레 특정 나라의 문화가 됐는데, 서로 다른 문명이 융합되거나 쇠퇴하는 과정에는 늘 음식이 자리했다.

설탕, 소금을 비롯한 6가지 가루들 이면에 숨겨진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전쟁이 요리한 음식의 역사’의 저자 도현신이 펴낸 ‘세계 역사와 지도를 바꾼 가루전쟁’은 6가지 가루를 토대로 세계 역사를 들여다본다.

고대 인도는 설탕을 만들어 먹은 최초 지역이었다. 설탕이 서양에 처음 알려진 것은 알렉산더대왕 인도원정 이후였다. 이후 설탕은 600년대 후반부터 지중해 지역을 지배한 이슬람제국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됐다.

아울러 설탕은 16세기 초반 십자군원정 무렵에는 부의 상징이었다. 십자군은 설탕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십자군이 중동에서 물러나자,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불잡아 온 흑인들을 카리브해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냈다. 역설적으로 달콤한 설탕에는 흑인 노예들의 쓰디쓴 고통이



오랫동안 인류에게 설탕을 공급해 준 사탕수수.

배어 있다.

북유럽 신화에서 소금은 황금으로 취급됐다. 네덜란드에는 ‘계란을 먹고 난 다음에야 소금을 가져온다’라는 속담이 전해온다. 도움을 주려면 적기에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초창기 베네치아인들은 수상도시답게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만들었다. 더욱이 중세 유럽은 소금에 세금을 매겼는데, 세금이 높아 서민들은 소금을 먹지 못할 때도 많았다. 프랑스 소금세는 신분에 따라 정해졌으며, 왕족이나 귀족, 성직자는 낼 의무가 없었다.

인도를 독립시킨 것은 ‘소금행진’이었다. 간디는 독립의 첫 번째 조건으로, 인도인의 소금 자취를 들었다.

“간디가 소금행진을 한 목적은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인도인들을 상대로 매기던 소금에 대한 항의의 뜻이었다. 인도에서 영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금을 팔거나 사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었으며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광대한 바다가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강요대로 비싼 소금을 사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후추는 인도와 동남아가 원산지라, 다른



폴란드에서 생산되었던 암염.

〈이다복스 제공〉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다. 유럽인들이 후추를 얻기 위해 동방으로 함대를 보낸 것은 당연지사였다. 태풍에 휩쓸리거나 괴혈병에 걸려 수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반복됐다. 결국 후추 전쟁은 십자군과 대항해시대를 연 단초가 됐다.

유럽 역사에서 밀과 연관된 무역전쟁은 나폴레옹의 러시아원정이었다. 나폴레옹은 영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 밀을 막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밀가루 음식은 “고

려시대, 중국 복숭 왕조와의 교류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밀가루를 잘 먹지 않던 일본인들의 식습관을 바꿔놓은 계기는 인스턴트라면이었다.

알려진 대로 커피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였다. 저자에 따르면 15세기까지는 유럽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16세기에 터키를 통해 알게 됐다. 이 커피가 유럽에 전파된 후 프랑스 혁명을 계획한 장소는 다름 아닌 커피를 즐기던 카페였다.

〈이다복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기서 끝나야 시작되는 여행인지 몰라

김현 외 지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를 멈춰 세웠다. 지난 2019년 말 출현한 바이러스는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도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

팬데믹으로 제동이 걸린 세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언택트’는 미래의 살아갈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당연치 여기던 일상은 오래 전 일이 되고 말았다. 랜선 회의, 원격 수업, 온라인 콘서트는 점차 친숙한 용어로 다가온다. 일각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고 ‘코로나 뉴노멀’을 제시할 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팬데믹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작가들의 공감과 위로를 담은 책이 나왔다. 김현 등 29명의 작가가 펴낸 ‘여기서 끝나야 시작되는 여행인지 몰라’는 팬데믹 블루를 앓는 이들을 위한 위로의 책이다. 시인, 소설가, 에세이스트 17명과 그래픽 작가 12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명의 질병’이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지구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던 수많은 생태계가 파괴되자, 서식지를 잃은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이 새롭게 적응을 시작하고 있다. (중략)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길을 찾아냈고, 이제는 반대로 인간의 적응을 요구 중이다.” (장은수)

책은 바이러스가 전복한 일상에 조점을 맞춰 편집과 제본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책의 통념을 뒤집는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데, 읽고 상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책은 앞뒤 어느 편을 펼쳐든 김현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동명의 에세이와 시로 시작한다. 그리고 각각의 방향에서 이어지는 에세이와 시는 중간에 드로잉을 거치면서 독자의 시선 변화를 유도한다.

〈알마·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밤의 역사

카를로 긴즈부르크 지음, 김정하 옮김

“이 책은 보기 드문 솔직함, 명료함, 우아함, 박식함을 토대로 지나친 선정주의와 무미건조한 학문적 진술 사이에서, 그리고 국지적인 역사기록학과 보편주의 사이에서 방향을 잡아간다. 이는 거대하고, 대담하고, 훌륭한 책이다.”

뉴욕타임스 북 리뷰에 실린 내용은 책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동시대 저명한 역사가 중 한 사람으로 미시사 연구 선구자로 꼽히는 카를로 긴즈부르크의 ‘밤의 역사’에 대한 찬사이다. ‘악마의 잔치, 혹은 죽은 자들의세계로의 여행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유라시아 공통의 문화적 기원을 추적한다.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저자는 14세기 나병환자들에 대한 음모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재앙이 닥치면 타자를 희생양 삼는 음모론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주장이다.

1321년 나병환자들이 “기독교 세계의 건강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수많은 나병환자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격리됐다. 1347년에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공포에 질린 민중들의 폭동이 발생했다.

저자는 나병환자를 향한 음모는 이후 정신병자, 빈자, 범죄자, 유대인을 거쳐 마녀와 주술사들에게 투사됐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역적, 시기적으로 방대한 곳에서 유사한 민간신앙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처럼 저자는 인류 보편의 문화적 기원을 추적하는 거시적 차원의 통찰을 시도한다. 중간 중간 오이디푸스 신화, 신데렐라 등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게 서술돼 있어 연구자는 물론 독자들의 관심을 끈다.

〈문학과지성사·3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목소리의 힘으로 꽃은 핀다

최광기 지음

“목소리는 꽃을 피우고, 그 꽃은 세상을 바꾸는 불꽃이 됩니다.” 남편에게 수십 년을 시달려 왔던 어머니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노인 등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 소박한 꿈을 이루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목소리의 힘으로 꽃은 핀다’가 그것.

저자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대변해 온 ‘국민 사회자’ 최광기. 100만 촛불 집회 사회자이자 소수자의 마이크, 약자의 목소리로도 알려진 그가 펴낸 이번 책은 그가 살아온 삶처럼 높고 크고 반짝이는 것이 아닌 작고 낮은 곳에 초점을 뒀다.

저자는 말한다. 들리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의 목소리는 꽃을 피운다고. 그 목소리를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책은 나 자신의 고통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소리치던 그녀의 삶에 녹아 있는 무수한 사연을 소개한다. 말 못 할 슬픔을 가슴에 품은 세월호 유가족,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탈성매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 소수자 등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아 왔던 작은 목소리들이 담겨있다.

또 언어적 표현(말)과 비언어적 표현(표정, 눈빛 등)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한다. 이외에도 말에 대한 다양한 팁이 담겨 있다. 말을 통한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 경청의 중요성, 구체적인 칭찬의 힘, 가볍게 던지는 말이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 대화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는 화법도 알려준다.

〈마음의숲·1만4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꽃詩로 엮은

꽃으로 엮은 소리

조선의 낭송 시집

시인 조선의

“조선의 시인은 꽃을 통해 자신의 시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꽃이 던지는 언어를 깊이 공감하고 상상력과 결부하여 형상화한다. 문학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는 당연한 자연이다. 그런 사실적 진실을 벗어나지 않은 진정성이 시적 상상력으로 진전한 것이다. 금번 여섯 번째 시집으로 엮어낸 시편들의 문학적 함의와 정서에 대한 호기심은 가독성을 사유토록 야기한다. 그 시편들 속에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진정하게 이뤄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탐색과 모색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철영 시인·문학평론가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기독신춘문에 당선
백교문학상
신석정초록문학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라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꽃으로 오는 소리』